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소식지

발행인: 유희중 | 편집: 선전부 | 충남 아산시 온궁로 4 3층 | kctucn.jinbo.net | mjcn@hanmail.net | 전화: 041-549-4081 | 2015-3호 (2015.03.02.)

신임본부장 당선 후 첫 운영위원회

지난 2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충남지역본부 유희중 신임본부장 임기가 시작되고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산별조직별로 총파업 조직화 상황이 보고되었다. 조직별로 준비되고 있는 진행상황은 차이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맞서 올해 총파업이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3월 19일 충남본부 투쟁 선포식 예정

1호 안건으로 총파업 투쟁 및 점검의 건이 진행되었다. 주요하게 총파업 총투표와 총파업 승리 충남 실천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충남본부 투쟁선포식 계획이 논의됐고, 3월 19일에 진행키로 결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총투표 투표율 60% 이상 조직 결의하기로

2호 안건으로 3월 11일 진행될 충남본부 대의원대회 논의안건이 점검되었다. 특히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투표의 투표율을 60%이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타안건으로 천안고교평준화를 요구하며 충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전교조 동지들에 연대하기 위해 각 산별 조직별로 천막농성에 함께하기로 했다.

<총파업 조직화 활동 보고>

- 17일(화), 귀향선전전(천안, 아산, 서산)
- 24일(화), 서태안위원회, 천안위원회, 세종시위원회, 부여군위원회
- 25일(수), 충남지역노조 대의원대회, 충남건설기계지부 운영위원회
- 26일(목), 전교조 출범식, 금속충남지부 확산수련회, 당진시위원회
- 27일(금), 충남본부 운영위원회
- 28일(토), 플랜트 충남지부 운영위 수련회

충남지역본부
소식지와
총파업 웹자보가
동지들걸스로
배달됩니다

충남본부 홈페이지에 PDF, 한글, 그림파일의 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이고, 간부동지들에게는 메일로도 발송합니다. 또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각 산별 조직담당자 동지들에게 배포합니다. 각 산별, 단위사업장 간부동지들께서는 소식지를 전체 조합원의 손에까지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 사진, 만평 등 기고하고 싶은 내용을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mjcn@hanmail.net>

장시간 심야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받다!



동희오토 노동자 황재민씨는 2013년 7월19일 야간 중식시간 식당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고, 뇌의 3분의 1을 드러내는 두개골 절개수술을 받았다. 그 결과 신체 왼쪽을 못 쓰는 장애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졸속으로 산재신청 하계끔 피해자 가족을 다그치고, 산재가 불승인되자 모르쇠로 일관한다. 2014년 5월20일 황재민씨의 부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살짜리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공장 앞에서 서투르게 쓴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한다. 이렇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만나 회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투쟁은 시작된다.

비록 소수의 숫자지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는 지역 노동자들, 단



체 활동가들과 연대해 공장 안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황재민씨 산재사건은 어느 누구에게 반복될지 모르는 우리의 문제임을 알려 나가고, 공장 밖으로는 장시간+야간노동, 높은 노동강도의 동희오토 노동현실과 근로복지공단의 졸속적인 산재승인 과정을 폭로해 나갔다.

결국 12월4일 사측과 보상 합의(대신기업이 보상금 지급과 산재협조 약속), 12월11일 근로복지공단과 담판, 재조사 결정, 2월23일 산재 승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황재민씨 산재사건 승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심혈관계 질환도 산재다. 둘째,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자 스스로만이 지킬 수 있다. 셋째, 노동자가 옳다고 믿고 싸우면 자본이 정해 놓은 룰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황재민씨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도 않았고, 급격한 업무변화도 없었지만, 지속적인 장시간+야간노동, 높은 노동강도의 노동현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런 설명은 어느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일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야 말겠다는 신념과 투쟁의지는 이미 산재불승인을 내려버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까지도 번복하게끔 만들었다.

황재민씨가 산재승인 결정 소식을 듣고, 장애에서 돌아올 수 없는 몸이지만,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동지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미소가 노동자가 건강한 밝은 미래의 시작이길 기대해 본다. 이제 쓰러지지 말고 싸우자!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장동준〉

충남문화예술단지부, 국악단 예술감독 성희룡·성추행 고발 기자회견 진행 천안시, ‘성희룡 아니고 마녀사냥’이라며 예술감독 비호



충남문화예술단지부는 지난 2월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국악단 예술감독(조주우) 성추행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악단 조합원들은 지난 20여년간 예술감독으로부터 일상적 성희롱 및 성추행,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지부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천안시의 밀실행정을 규탄했다. 천안시는 성추행 관련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성희롱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유발시켰고 이는 공공기관인 천안시청이 성희롱예방지침 9조 (피해자 보호)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담당 공무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성희롱, 인권유린은 문제가 없다. 해고를 피하기 위해 예술감독 흔들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예술감독은 기자회견 다음날 “성희롱, 성추행, 인권유린은 사실 무근이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천안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천안시는 내부 감사가 진행중임에도 사표를 수리하면서 예술감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충남본부는 천안시에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천안시의 밀실행정 및 성희롱예방지침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태안농협하나로마트지부, 2년여간의 질긴 투쟁 승리로 마무리돼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동자의 정신으로 2년을 싸웠던 충남지역노조 태안농협하나로마트지부 3명의 동지들의 투쟁이 드디어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2월 12일 사측과 원직복직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합의와 단체협약 체결에 이어 17일 열렸던 지노위 심판에서는 부당대기발령,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됐다.

송전탑 건설 노동자, 민주노총 충남건설지부 가입!



지난 2월 22일 송전탑을 건설, 유지,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송전 노동자들은 크게 가선작업과 조립작업으로 나뉘고 각각 250여명이 전국에 산재해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중 가선분야 약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고 충남건설지부에 가입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회는 임원(지회장, 사무장, 사무차장)과 권역별 대의원을 선출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토론 확정했다.

대법원,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확인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2월 26일 열렸다. 대법원은 4명(오지환, 김준규, 심수진, 김기식)에 대해서는 현대차 직원임을 인정했고, 3명(정환운, 강신한, 권수정)은 근무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업무 내용, 정규직·비정규직 혼재근무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현대차 전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 관련 김기덕 새날 법률사무소 원장은 “현행 파견법은 하루라도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면 고용의무가 있어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옛 파견법에는 고용의무 조항이 없고 무조건 2년을 초과해야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있었다”며 “그래서 묵시적 근로관계를 주장했다지만, 법원은 1심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패소한 3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가 승소한 아산사내하청지회 김기식 조합원은 “정몽구가 24개월 넘게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23개월까지만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내가 말보다 발이다
총파업 승리 실천단

전 국민 해고·비정규직화 프로젝트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4월 총파업을 넘어 하반기 총파업까지!

총파업 승리의 첫걸음, 총파업 승리 충남 실천단을 모집합니다.

총파업 승리 충남 실천단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담당 : 구재보 조직국장, 010-3034-8212)

전화번호) 041-549-4081 / 팩스) 041-549-4082 / 이메일) mjan@hanmail.net

<총파업 승리 충남 실천단>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조직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의 선도부대, 충남 실천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실천단은...

현장에서는 총투표 가결과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합니다. 거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반민중성-반민주성에 대해 폭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서명운동 등을 묶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선전선동을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9일까지(1차)

■ 신청방법

- 해당 노동조합으로 신청, 충남본부로 직접 신청도 가능

- 이메일, 팩스, 유선전화 가능

■ 담당 : 구재보(조직국장, 010-3034-8212)

주요 사업 일정



| 날짜 | 시간 | 장소 | 내용 |
|--------|-------|----------|--------------------------------|
| 2일(월) | 10:00 | 본부회의실 | 본부 상집회의 |
| | 14:00 | 천안축구센터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집행위 수련회(1박2일간) |
| 4일(화) | 16:00 | 아산비정센터 | 장그래 운동본부 기획회의 |
| | 18:00 | 서산터미널 | 노동자-서민살리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대시민 선전전 |
| 5일(수) | 07:40 | 유성기업 앞 | 유성지회 출근 선전전 |
| | 종일 | 충남도의회 앞 | 천안고평 축구 천막농성 결합 |
| | 11:00 | 무봉산수련원 | 금속노조 충남지부 확대간부 수련회(1박2일간) |
| | 18:30 | 보령시청 | 보령시위원회 |
| 6일(목) | 08:30 | 천안시청 | 충남문화예술단지부 출근 선전전 |
| | | 부여여성문화회관 |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대의원대회 |
| 7일(금) | 14:00 | 서울시청 | 3.8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 10일(화) | 14:00 | 아산비정센터 | 총파업 승리 충남 실천단 교육 |
| 11일(수) | 13:30 | 아산근로복지관 | 충남본부 정기대의원대회 |
| 12일(목) | | | 민주노총 현장순회 |
| 13일(금) | | | 민주노총 현장순회 |